## + 평화 사랑하는 수녀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미숙 아녜스 수녀입니다. 1989년에 입회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광주대교구 봉선동본당, 연동본당, 학운동 본당 수녀를 거쳐 청주교구 충주성심맹아원에서 9년, 인천교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1년 동안 사도직을 한 후 현재는 20년 만에 본당수녀로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시각장애인 거주

시설 '충주성심맹아원' 소임을 시작하여 2008년 2월까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저에게

마더씨튼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촉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 특히 시각장애인축구단을 만들어 함께 공도 차고, 전국대회에 출전하고, 부모와 가족이 없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살폈던 시간들, 부모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힘들었던 때, 함께생활했던 아이들 2명을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는 많이 힘들



고 아팠지만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와 인내로 견뎌 냈고, 많은 갈등과 알력 속에서 인내의 한계를 느꼈던 시간도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것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2008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사도직 이동을 하여,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조정과 중재자의 역할로 행정업무를 주로 하게 되었지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아동들의 발

달 향상이 보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일, 3년 마다 실시하는 복지관 평가를 위해 야근과 밤샘을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공공기관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 불편했던 일들, 알코올에 젖어 언어폭력

을 일삼았던 사람들, 복 지관 프로그

램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가

던 발달장애인이 돌발행동으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청하면서 피해를 줄이고자 했던 일도 여러 번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 힘들었던 만큼 잊을 수 없는, 그러나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사회복지 사도직을 수행하였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공부하고 배워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달기도 합니다."(M. Seton)

+Peace. Hello, dear sisters! I am Sister Kim, Mi Sook. My baptismal name is Agnes.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89. This year, I celebrate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my religious life. I worked at parishes in Gwangju Archdiocese including Bongsun-dong, Yeon-dong and Hakwoon-dong. I also ministered 9 years in Choong-ju Sacred Heart Rehabilitation Center and 11 years in Namdong Rehabilitation Center of Incheon Archdiocese. Now I am working at a parish after 20 years in social work.

I began my ministry 20 years ago in the Sacred Heart Rehabilitation Center, a live-in facility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At that time I had no idea about social work. I worked with the visually impaired until February in 2008. This experience encouraged me to live the spirituality of Mother Seton. I fed, clothed and educated children in the center and made efforts to meet their needs. A soccer team for the visually impaired was initiated. I played soccer with the team and they competed in a national league. I especially cared for orphans. However, there were



also difficulties. I had a harsh time because it was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parents. What I did was to rely only on the Lord with prayer and to patiently endure. Sometimes I felt limited because of my conflicts and frictions. In hindsight, I found that Lord was in every moment.

In 2008, I moved to Namdong Rehabilitation Center and did administrative tasks as a coordinator and mediator. I tried to understand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 was pleased that children had developmental improvement through our therapy programs. There were hard times such as working

overnight with staff for evaluation every three years, having difficulties wit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experiencing verbal abuse by alcoholics. One day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nt home after a program at the center. On his way home he attacked a man. I met police officers and apologized to the victim several times in order to

address the incident. It

was a difficult experience but became an unforgettable memory that makes me smile.

I worked as a social worker for the last twenty years but it is still difficult for me to fully understand people with disabilities. Maybe it will be a challenge even if I study and learn about them for the rest of my life.



So sweet is the Providence that over rules us' (M. Seton)